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

이 채 언* · 최 용 략** · 신 용 태***

목 차

1. 서론	3.3 전자정부 해외진출 내부역량 분석
2. 문헌 연구	4.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
2.1 전자정부 개념	4.1 해외진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
2.2 전자정부 해외진출 유형	4.2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략
2.3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기존연구	4.3 분야별 접근방향
3.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및 분석	5. 결론
3.1 전자정부 해외진출 필요성 및 성과	References
3.2 전자정부 해외진출 외부환경 분석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표제어: 전자정부,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자정부 수출, 전략적 접근

접수일(2015년 11월 25일), 수정일(1차: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24일)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goodever@ssu.ac.kr

**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교수, ylchoi58@ssu.ac.kr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shin@ssu.ac.kr

1. 서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발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은 정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1990년부터 국가정보화를 시작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1998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와 정보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열람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추진하였다.

한국은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 분야별로 시스템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유엔(UN)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으로 1위로 평가받았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인정하고 행정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들은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 분야별로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연구 및 답습하고 있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UN 전자정부 평가결과로 조성된 정부한류 확산의 기회를 수출로 연결하여 관련 부/처·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 결집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련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진출이 미흡하여 세계의 전자정부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미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관련 법령, 조직체계, 프로세스, 표준화된 솔루션, 자금 획득 및 지원 등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제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하며 제3장에서는

해외진출 필요성과 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대외 및 대내 전략,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2. 문헌 연구

2.1 전자정부 개념

전자정부는 “인터넷 혹은 디지털 정부를 목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Homburg, 2008),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다른 디지털 방법을 통해 전달하는 것”(West, 200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정부법(법률 제12738호, 2014. 6. 3)에서는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성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의 업무 절차, 기능 및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과 개혁이 선행되어 하는 관점으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정충식, 2015).

2.2 전자정부 해외진출 유형

전자정부 해외진출 유형에는 무상원조 모델인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유상원조 모델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 순수 수출입 모델, 국제기구 파이낸싱 모델 해외 직접투자 모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이 있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ODA 및 EDCF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실물지원형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ODA 사업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무상원조로, 개도국의 요청에 의해 실물지원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수행을 위한 기업 선정은 국내 기업간 공개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지원시 지나친 선진국형은 개도국에서 운영과 관리에 부담이 되며, 법·제도와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개도국의 수준과 현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황보열, 2010).

EDCF 사업은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및 경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의 유상원조로 대상국의 원조요청에 따라 차관용자 등의 방식으로 하여 실물 또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한다. 선정은 국내 기업들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EDCF 사업의 범위가 초기 타당성검토까지 확대됨에 따라 집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남달우 등, 2013).

국제기구 파이낸싱 자금은 기금을 출연하는 국가는 펀드만 조성하고, 대상국의 원조요청에 의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가 컨설턴트 제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실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연한 국가는 최종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활동은 국제기구가 수행한다(황보열, 2010).

KSP 사업은 단기간에 고도성정을 달성한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과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가정책자문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와의 공동건설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www.ksp.go.kr).

2.3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기존연구

대부분의 전자정부 관련 논문은 전자정부 구축 및 발전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자정부 해외진출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혁준(2012)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국 전자정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전수해야 하며,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병행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ODA, 정부간 MOU 체결, IT협력위원회, 전문가 미팅 등 방안에서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이며, 향후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달우 등(2013)은 “전자정부의 수출과 관련한 개념과 해외진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고 주요 주체들의 역할과 책무, 해외진출 각 단계별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미정 등(2003)은 전자정부 ODA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한 베트남과 몽골을 대상으로 9개 사업을 평가하여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맞춤형 설계와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거버넌스적 추진체계 정립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남재일 등(2013)은 한국의 전자정부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현재 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적이고 협력적 추진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 및 유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 지원정책 개선, 추진 모델 등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방향 제시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3.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및 분석

3.1 전자정부 해외진출 필요성 및 성과

3.1.1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필요성

한국 전자정부는 Tab. 3-1과 같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함으로써 UN으로부터 전자정부 최우수 국가임을 공인받은 것이며 앞으로

한국 전자정부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Tab. 3-1. The Result of UN e-Government Survey 2014 (R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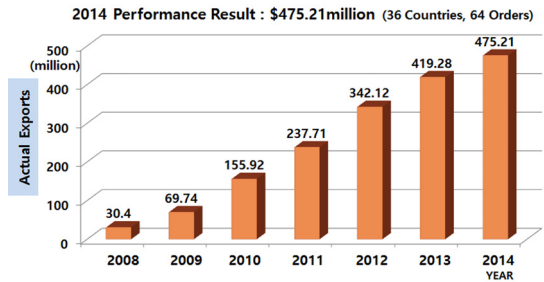
Category	2005	2008	2010	2012	2014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5	6	1	1	1
Online Service	4	6	1	1	3
ICT Infrastructure	9	10	13	7	2
Human Resources	14	10	7	6	6
Online Participation Index	5	2	1	1	1

Material: MOI Press Releases(2014. 6. 25), Appraisal Report
Source : <http://unpan3.un.org/egovkb/Reports/UN-E-Government-Survey-2014>.

첫째는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한류 확산의 기회로 삼아 해외진출로 연계하여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IT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데 있다(행정자치부, 2014). 둘째는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 시행착오,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전자정부를 세계에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4). 셋째는 개발도상국이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을 롤 모델(role model)로 삼고 벤치마킹과 함께 연수 및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며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남달우 등, 2013). 넷째는 성장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이 필요하며, 중국 등 경쟁국의 해외 전자정부 시장기회 선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시스템이 표준이 되어 한국지향 및 한국의존도를 높여 타 사업 및 분야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는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통하여 IT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더욱 공고히 하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있다(최혁준, 2012).

3.1.2 전자정부 해외진출 성과

2014년 한국의 전자정부 수출 실적은 Fig. 3-1과 같이 총 36개국 64건으로 4억 7,521만 불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13%가 증가하였다.



Material: MOI Press Releases(2014. 12. 19).

Fig. 3-1. Results of Korea e-Gov. Export

주요 품목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관세 등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안전, 통계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 수출품목이 기여하였다

수출유형으로는 Tab. 3-2와 같이 국내 원조자금 기반의 수출(2012년 42%)에서 해외정부 자체예산 및 국제기구 원조자금을 활용한 수출(2014년 91%)로 변화하였다.

Tab. 3-2. The result of Export Type

Export Type	2012	2013	2014
Local ODA	16,307(48%)	13,961(33%)	4,455(9%)
Aid Funds of Integrations Org.	800(2%)	2,988(7%)	20,178(42%)
Budget of Foreign Gov.	13,355(39%)	25,380(60%)	22,891(49%)

Material: MOI Press Releases(2014. 12. 19).

수출건수는 Tab.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매년 감소(2012년 19건 → 2014년 8건)하였으며, 수출액도 정체(2012년 32,955만 불 → 2014년 35,211만 불)되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

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국내 원조자금을 활용한 컨설팅 사업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졌다(행정자치부, 2014).

Tab. 3-3. The result of Export by Enterprise & Government Agency
(million\$, case)

Category	2011	2012	2013	2014
Total	237.71(15)	342.12(25)	419.28(53)	475.21(64)
Conglomerate (ratio, rate of increase)	195.10(6) (82%, 58%)	329.55(19) (95%, 112%)	348.81(17) (83%, 6%)	352.11(8) (74%, 1%)
Small and Mid-sized firm (ratio, rate of increase)	5.00(1) (2%, -)	5.47(3) (2%, 10%)	16.68(19) (4%, 205%)	51.58(41) (11%, 209%)
Public Institution (ratio, rate of increase)	37.61(8) (16%, 16%)	7.10(3) (3%, -81%)	53.79(17) (13%, 658%)	71.52(15) (15%, 33%)

Material: MOI Press Releases(2014. 12. 19).

3.1.3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저조 원인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 실적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2013년 글로벌 공공 IT시장이 1,500억불 규모임을 고려할 때(전형철, 2013) 4.7억불(2014년)이라는 매우 적은 부분(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이 저조한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외 전자정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상국의 상황 및 여건 파악 및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 및 주도형태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 법령의 분산 및 총괄 법령 부재, 조직체계의 분산 및 컨트롤 타워 부재, 해외진출을 위한 프로세스 미흡과 솔루션(상품) 부재, 해외진출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기업간 상생협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3.2 전자정부 해외진출 외부환경 분석

3.2.1 전자정부 해외시장 환경

전자정부 해외시장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 등이 저가 공세와 함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가격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다(전자정부 해외진출포럼, 2015. 3. 19).

선진국의 전자정부 해외시장 선점과 중국 등의 저가 공세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3.2.2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은 정보화 기술 및 지식수준이 저조하고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 제도 및 문화, 관습의 차이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력도 부족하다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및 착수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스템 구축 후의 운영유지 미흡과 후속사업의 연속성 결여, 현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설계 및 개발로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이로 인해 활용 및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오희려 전자정부 시스템이 기존 업무처리 방식보다 번거롭고 불편하며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이미정 등, 2013).

3.2.3 개도국의 요구

개도국은 한국의 ODA 및 EDCF 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사업의 경우를 보면 약 70% 정도가 IT, 교육, 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한국의 통합된 첨단 전자정부시스템보다 자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분리된 개별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기술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경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행정혁신에 대하여 개혁과정에서의 저항 극복, 법령 및 제도 정비과정 적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부족에 따라 한국의 ODA 자금, 국제금융기구 자금 획득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다.

3.3 전자정부 해외진출 내부역량 분석

3.3.1 해외진출 관련 법령 분산 및 총괄 법령 부재

전자정부 해외진출과 관련한 법령들은 Tab. 3-4와 같다. 전자정부법(제70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0조 전문인력 양성, 제 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이 있으며, 정부 각 부/처별 직제, 기관별로 국제협력단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법령은 모든 조직 및 제도·절차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법령이 분산됨에 따라 조직이 분산되고 제도 및 절차가 분산되는 것이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사업은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법령이 부재한 가운데 개별 법령에 따라 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다.

3.3.2 조직체계 분산과 컨트롤타워 부재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한 부처·기관은 Tab. 3-5와 같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내 국정운영실이 있으며, 전자정부 관련 업무는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 외교안보정책관 및 개발협력정책관 등이 사안에 따라 담당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편성되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최고정책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조정실장이 간사위원이며 하위에 실무위원회, EDCF 협의회, 무상원조 협의회가 있다 EDCF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협의회는 외교부차관이 위원장으로 KOICA를 통하여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주무부처이며, 2015년 1월 전자정부국에 글로벌전자정부과를 편성하여 해외진출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한 소속기관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공동으로 업무통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서, 정보통신정책실에서 인터넷 융합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정책,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에서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무부처로 소속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제하여 ODA 사업을 담당하고

Tab. 3-4. Laws related to e-Government Export

Law	Main Contents	Related Dept.
Korean e-Government Act/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Entire e-Government	MO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NIPA(ICT)	MSIP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NIPA(SW)	MSIP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KOICA-ODA biz.	MOFA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KEXIM-EDCF biz.	MOS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t	KOTRA-Export biz.	MOTIE
NTS, KCS, KIPO, KMA		Relevant org.

Material: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search, extract.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무부처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제하여 EDCF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기상청 등에서도 전자정부 해외수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ab. 3-5. Organization related to e-Government Export

Dept.	Organization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ETC
PMO	Office for Government Coordination-General Administration · Diplomatic Security ·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 KISDI	ODA, EDCF
MOI	e-Government Bureau(Global e-Government Division), NCIS ※ The competent ministries of e-Government	
MSIP	ICT Industry Policy Bureau - Internet Converg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Software Policy NIA, NIPA, KISA	IT Company
MOFA	KOICA	ODA
MOS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Bureau (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Korea Eximbank	EDCF
MOTIE	KIAT, KOTRA	
Administration	KIPO, KCS, PPS	
Association	KeEPA, KOSA, ITSA, FKII and etc.	

Material: Organization Chart by Government Ministry, extract and edit.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이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외국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형태이다(최혁준, 2010).

이와 같이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조직이 분산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부처 및 기관별 수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통제가 어려운 현실이다

3.3.3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사업 발굴-자금-입찰-주-수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 발굴 단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발굴에서 수주까지 약3~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남달우 등, 2013).

ODA 및 EDCF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국 선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단기간 형식적이며 기관별 중복, 전문성 결여로 충분한 평가가 미흡하다

해외진출을 위한 프로세스가 기관별로 중복되거나 상이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번 프로세스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부처·기관별로 단기 실적중심의 특정단위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별 연계 후속 사업의 연속성이 미흡하다(이미정 등, 2013).

사업추진간 소통 및 대상국의 참여가 부족하고 파트너십과 협력관계가 미흡하며,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국의 상황 및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계획대로 수출국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이미정 등, 2013).

이러한 해외진출 프로세스의 미흡으로 해외진출이 지연되고, 개도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3.4 해외진출 솔루션(상품) 부재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UN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이 되는 인터넷망도 세계 제일의 수준이다.

그러나 개도국이나 대상국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한 가운데 구축 자금이나 운용을 고려하여 자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분리된 개별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한국은 세계 제일 수준의 도로망과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수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상국은 도로망도 미흡하고 구매 및 운용능력도 부족하여 자국 환경에 맞는 소형 자동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시스템 구축시 각각 다른 개별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사업자에 중속되는 문제가 있으며, 수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분리하여 대상국이 요구하는 작은 개별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막상 수출을 하려고 해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즉 팔 물건이 없는 것과 같이 된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은 해당국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함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3.3.5 해외진출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은 국내 ODA 및 EDCF 예산, 해당국 정부의 자체 예산, 국제기구 원조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자금은 매우 부족하며 획득이 어려운 실태이다

한국의 ODA 및 EDCF 예산에서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규모는 많지 않다. 2015년 ODA 사업 규모는 1억 8,600억 불이며(디지털타임스, 2015. 2. 23), 이중 전자정부 사업은 9% 수준인 1,630만 불이다. EDCF 사업의 경우에도 2015년 상반기 IT분야 사업은 2억 8,700만 불 규모가 편성되어 있으며(전자신문, 2014. 10. 20), 이중 전자정부 사업은 1억 1,003만 불 규모이다.

개도국 자체자금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 수주 후에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대금을 받고 있어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은 부재하며, 다자개발은행(MDB)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영문으로 된 제안서 작성 등 입찰준비와 입찰준비금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지원금융이 부재하며 입찰과정에서는 중국 등의 저가 입찰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3.3.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미흡

사업발굴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편중이 심하고 본 사업은 대기업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EDCF 및 MDB 발주사업은 사업발굴에 참여한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2)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하한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입찰과정의 과열된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쟁사 협력기업의 주력을 스카웃하기도 하며 짧은 시간의 제안발표로 결정되는 현행 평가제도, 전문성이나 기술력보다 회사규모나 브랜드, 가격으로 입찰을 따내고 있어 결국 이러한 것이 부실사업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대상국의 만족도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디지털타임스, 2015. 3. 8).

4.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

4.1 해외진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Fig. 4-1과 같이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한 다음,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분야별 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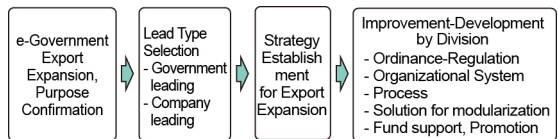


Fig. 4-1. Strategic Approach Process

먼저,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전자정부가 세계 1위 수준이라 해서 전자정부 해외진출도 1위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 목적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와 빈곤 퇴치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인가, 행정한류를 세계로 확산하여 한국의 국가위상 고양에 기여할 것인가, 기업의 수입을 창출하고 국익 증대를 위한 것인가, 한국의 수출기반 및 여건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인가 등 해외진출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진 주도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부주도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주도로 할 것인지 기업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주도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어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핵심이 되는 접근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접근전략은 외부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내부역량 분석을 중심으로 내부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접근전략에 맞추어 분야별로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를 포함한 조직체계를 개선하며, 해외진출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진출 관련한 자금지원 및 획득과 체계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2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략

4.2.1 해외진출 대외전략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외전략으로는 차별화 전략, 맞춤화 전략, 단계화 전략, 체계적인 접근 전략, 3원(win)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차별화 전략이다. 다수의 대상국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대상국별 환경여건과 요구사항에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적절한 추진 모델을 적용하여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는 맞춤화 전략이다.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전자정부 시장의 수요는 매우 많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대상국의 정보화 수준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화 전략이 필요하다(최혁준, 2012).

셋째, 단계화 전략이다. 대상국의 정보화 수준, 업무 시스템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1단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다음단계인 2, 3단계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될 수 있다(최혁준, 2012).

넷째, 체계적인 접근 전략이다. 전체적인 개념 없이 가용한 예산으로 분산된 부처·기관별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ODA 및 EDCF 사업을 연계하여 대상국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친화적인 국가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3원(win) 전략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가장 먼저 대상국이 만족해야 하고, 진출국인 한국이 요망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며 진출하는 기업도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모두가 윈-윈 해야 한다.

4.2.2 해외진출 대내전략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대내전략으로는 정부주도 전략, 전략 상품화 및 모듈화 전략, 한국 중심화 전략, 입체화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 전략이다.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정부가 주도하여야 한다. 대상국의 정부와의 협력을 기업이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관련 법령과 조직체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전략 상품화 및 모듈화 전략이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여 종 있으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략 상품화하고 집중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유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듈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 중심화 전략이다.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국의 표준을 세계로 확대하여 한국 중심화하고 한국의존도를 높여 후속사업과 타 산업의 진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대외 및 대내를 융합한 입체화 전략이다. 전자정부 해외진출은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KOICA가 대상국(고객)을 물색하면 NIPA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이것이 ODA 및 EDCF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대외 및 대내를 융합한 입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4.3 분야별 접근방향

4.3.1 법령 및 제도 정비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한 법령은 실태분석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정부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다.

법령의 분산은 조직과 제도 및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와 연계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기준법이나 모법이 필요하다 방안으로는 전자정부 해외진출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행 전자정부법에 국제협력 분야를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상위 기준법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기존 법령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적인 부분도 정비하여야 한다 ODA 및 EDCF 사업추진 관련 제도적인 규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비롯하여 불분명한 관행 상이하고 중복된 제도 등을 정비하고 추가 보완하여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4.3.2 조직체계 개선 및 컨트롤타워 운영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의 주무부처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정부 사업수행의 주무 부처이며, ODA 사업을 외교부, EDCF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동급 장관이 조정·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물리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처별 기능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가용한 방안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전자정부 해외진출 기능을 조정·통제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개발협력관 업무를 확대하여 전자정

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제도를 총괄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ODA 및 EDCF 분야를 관장하는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자정부 해외진출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자정부해외진출추진위원회를 정부차원의 상설기구화하여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컨트롤타워는 조직체계에서 제시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나 정부의 상설기구화로 제시한 전자정부해외진출추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컨트롤타워에서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실제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하여 인력 양성과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된 거버넌스로 브레인타워(brain tower)를 설치하여 ODA, EDCF 등의 대상국 요청을 종합하고, 추진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며, 해외진출 프로세스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를 통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협력·지원하며 수행할 수 있는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3.3 전자정부 해외진출 프로세스 개선

전자정부 해외진출 프로세스 개선은 해외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발전사업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시스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해외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이나 지역공동체기구를 활용하며 초청 연수 및 교육성과를 통한 발굴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며, 정부-해외공관·기관-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대상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방한인사나 국제회

의·포럼에서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 정립과 유형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상국의 상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전자정부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요소인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를 계몽하고 적용해야 한다. 개도국의 기존방식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성과달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김병준, 2015).

또한 사업초기 단계부터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상국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언어는 시스템 구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이미정 등, 2013).

사업추진간 감리 및 만족도 조사 등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사업과 SW 산업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며,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추진하던 수출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은 대상국의 환경 및 특성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국 정보에는 필요로 하는 솔루션 종류를 포함하여 산업 특성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많은 국가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초청 연수 및 견학을 하고 있으나, 전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igital brain)은 약 50여 개국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hojo)은 약 100여 개국에서 견학을 하고 갔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자기부/처에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실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한국의 통합된 SW 홍보 브로셔(brochure)를 만들어 상설전시관에 전

시하고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 대형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다른 물건을 보고 살 마음이 들어 사는 것처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와 전체 SW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마트(mart)의 진열 상품과 같이 설치하고, 대상국에 무상제공과 유상판매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4.3.4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의 요구에 맞춤형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전체가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작은 컴포넌트로 모듈화해야 한다. 대상국은 한국이 개발한 전체 시스템보다 자신들에게 적합한 모듈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듈은 국제표준을 체계적으로 따르고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로 적용하거나 변환을 해야 한다. 한국이 개발한 솔루션 개발환경의 자원(OS, WAS, DBMS, WEB 등)은 대부분 상용으로 구입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다.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변환 도구(tool)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들은 한국의 솔루션을 자신들의 환경에 적절하도록 변환하는데 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변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수출 가능한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한국의 경험과 방법론, 제공 가능한 데이터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후에도 대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3.5 해외진출 자금 지원 및 획득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우수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 자금지원과, 국제기구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준비자금 지원 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ODA 사업 지원기준을 고르게 배분하는 형평성과 특정국가에 집중하는 것을 성과 비교하여 지원기준을 검토해야 하며, ODA 사업 지원 후 EDCF 사업으로 연계시 장기 소요로 인해 ODA 사업 지원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국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자금을 획득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획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기구에서 활동 가능한 언어 구사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해야 하며, 국제기구에 전문 컨설턴트 활동을 협조하여 국제기구 정보획득과 자금 확보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구 발주사업의 입찰정보를 획득하여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국제기구 자금획득을 위한 영문 제안서 작성 및 발표를 지원하는 등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남재일 등, 2013).

5. 결론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세계 전자정부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에서는 먼저 전자정부 해외진출 환경과 개도국의 상황 및 여건 개도국의 요구를 살펴보았으며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역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이 부재하고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조직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재하며 해외진출 프로세스가 미흡하였다.

또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솔루션이 부재한 가운데 해외진출 자금지원이 미흡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미흡하였다.

실태 분석을 기초로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형태를 결정한 다음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략은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대외전략으로는 차별화 전략, 맞춤화 전략, 단계화 전략, 체계적인 접근전략, 3원(win)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대내전략으로는 정부주도 전략, 전략 상품화 및 모듈화 전략, 한국 중심화 전략 대외 및 대내를 융합한 입체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통제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 또는 개정,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및 브레인타워 운영 해외진출 프로세스 개선으로 해외 사업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업추진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정보공유체계 및 홍보를 제시하였으며,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자금지원과 대상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자금획득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면 한국 전자정부를 세계로 확산하고, 해외진출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이다. 향후 연구방향은 경쟁국의 전략과 한국의 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제 전자정부 해외사업을 추진한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Choi, Hyuk J. (2010), Export Promotion of Korean Electronic Government to North Africa Region, *The e-Business Studies*, 13(2), 93-110.
- [2] Homburg, V. (2008), *Understanding E-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i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Routledge.
- [3] Hwangbo, Y. (2010), A Study on Korea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Government Export, Paper presented at Summer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Seoul, 47-54.
- [4] Jeon, Hyung C. (2013),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and IT services global company competitive pla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 30(9), 72-77.
- [5] Jung, Chung S. (2015), *The Theory of Electronic Government*, Seoul: Seoul Economic Business.
- [6] Jung, Seok C., An, B. H., and Kim, C. M. (2005), Success Factor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e-Government, *The e-business Studies*, 6(2), 169-192.
- [7] Kim, Byeong J. (2015), Challenges and Task to extend Korea's e-government Export, *D. gov Issue* 2015-1.
- [8] Lee, Chae E. (2015), A Study on Strategic Approach of Korean e-Government Export, Spring Meeting of Korea Society of IT Service, Seoul, Proceedings, 145-152.
- [9] Lee, Chae E. (2015), Strategic Approach of e-Government Export, e-Government Export Forum, Seoul, Proceedings, 168-172.
- [10] Lee, Mi J. Song, H. J., and Lee, S. J. (2013), A Diagnosis Research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e-Gov: Focused on Mongolia and Vietnam,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6(2), 27-61.
- [11]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 2008-2012 Electronic Government white Paper.
- [12] Ministry of the Interior (2014), Press Release.
- [13]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Administration Autonomy 2014 white Paper.
- [14] Nam, Dal W., Hong, J. H., Kim, S. H., and Jo, H. (2013), Research on systematic export of e-govern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9(6), 424-448.
- [15] Nam, Jae I. and Lee, J. W. (2013), A Strategic Approach for Promoting Korean e-Government Model Exports, *JKIECS*, 8(7), 1049-1064.
- [16] West, D. M. (2004), E-Govern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Service Delivery and Citizen Attitud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1), 15-27.



Chae Eon Lee (goodever@ssu.ac.kr)

Chae Eon Lee is currently a Adjunct Professor of MIS at School of Business, Soongsil University, and a Director of Korea Crisis Management Institute. He received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Korea Soongsil University in 2008, and Ph.D. in Politics from Korea Kyungnam University in 2012.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service quality, business consulting, business data analysis & management, IT service, national crisis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and etc.



Yong Lak Choi (gyichoi@ssu.ac.kr)

Yong Lak Choi is currently a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 since 2006 and in graduate school of SW, Soongsil University since 2012. He received the doctorate degree of engineering i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in 2001.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database, big data, data modeling,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and etc.



Yongtae Shin (shin@ssu.ac.kr)

Yongtae Shin is currently a Professor of School of Computing and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Software at Soongsi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Computer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Iowa in 1994.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et protocols, multicasting, information security, and IT policy and management, and etc.

A Study on Strategic Approach to Expand Korean e-Government Export

Chae-Eon Lee* · Yong Lak Choi** · Yongtae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c approach to expand Korean e-government export. Korean e-government was evaluated as a top level by UN electronic government survey 2014. However its export is very limited.

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related to e-government, and analyze existing Korean e-government expor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lack of a law related e-government export, decentralized organizations, insufficient export process, lack of e-government solution for sale, limited funds, deficiency of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This study suggests a strategic approach such as to clarify the purpose of e-government export, to decide government or civilian-oriented export, to establish driving strategy, to improve and develop e-government export related areas.

There are many ways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e-government export as follows: to enact a basic law or to revise the e-government law, to integrate functions of separated organizations and establish control tower, to improve export process, to build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develop standardized solution module, and to expand fund to support.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nhance Korean e-government export.

Keywords: e-Government, e-Government Export, Export, Strategic Approach

* Adjunc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goodever@ssu.ac.kr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ftware, ylchoi58@ssu.ac.kr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School of Computing, shin@ssu.ac.kr